2012년 지식경제부
업무보고

'11.12.15(목) 08:00시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조 달러 행정, 2조 달러 전략"

2011. 12. 15.

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순 서

I. 그간의 성과와 2012년 정책방향 ····· 1

II. 실물경제·에너지 리스크에 총력 대응 ····· 8

1. 실물경제 둔화에 선제적 대응 ····· 9

2. 에너지·자원 수급 안정화에 총력 ····· 12

III. 1조 달러 무역에 걸맞은 따뜻한 행정 ····· 17

1. 청년 일자리·고용 창출 ····· 18

2. 서민생활 보호와 안정화 ····· 24

IV. 2조 달러 경제를 여는 성장전략 ····· 28

1. FTA 중심국가로 도약, 드넓은 시장 확보 ····· 29

2. 함께 가는 공생발전 산업생태계 조성 ····· 34

3. 멀리 보는 미래 성장동력 확충 ····· 41

Ⅰ. 그간의 성과와 2012년 정책방향

1 그간의 성과 평가

◇ **(지경부 출범)** 실물경제 융합, 지식정보화,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산업 진흥기능이 통합된 부서로 출범

* 산자·정통·과기·재경부의 실물경제 진흥기능(R&D, IT진흥 등) 통합

◇ **(성과)** 주력산업 경쟁력을 토대로 동반성장과 녹색성장을 선도,「**산업강국, 무역대국**」완성 적극 추진

1 **(통합시너지)** 기능 효율화로 정책 실행력과 시너지효과 제고

○ 중복기능을 조정하여 행정력 강화, 분산된 법률·규정과 조직을 간소화하여 수요자 중심 행정 구현

*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기본법 등 다수 법률을 '정보통신산업진흥법'으로 정비, R&D 규정을 대폭정비(110개→11개)

○ 부처별 기능 전문화로 신속한 정책 수립, 정책 패키지화와 긴밀한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

* 수출-IT정책의 연계(교통카드시스템 콜롬비아 수출, 3억 달러), 우체국 금융자금의 실물경제 지원기능 강화 등

➪ 향후, 글로벌 IT산업의 SW중심 재편 추세에 대응하여 SW 경쟁력 강화 등에 정책역량을 보다 집중해 나갈 필요

2 **(동반성장)** 든든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동반성장 기반 강화

○ 9.29 동반성장 대책 이후, 대기업의 자발적 참여 확대와 중소기업의 체감도 향상

○ 유통업계 동반성장을 위한 SSM 규제 법안 마련으로 과도한 SSM 출점 제한, 골목상권 피해 최소화

○ 균형 생태계를 위한 중견기업 육성 법적기반* 마련,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 프로젝트(World-Class 300) 시동

* 중견기업 정의, 지원근거, 조세감면 등 산업발전법 개정('11.3)

➪ 다만, 대내외 충격시 비교적 큰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상공인 등의 안전망 강화 노력 보완할 필요

3 **(무역대국)** 글로벌 위기를 딛고 무역대국의 반열에 등극

○ 금융위기에 따른 실물경제 위축에 맞서 수출 총력 지원, 위기대응 체제 가동으로 빠른 회복세 시현

○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세계적 위상에 힘입어 '10년 세계 수출 7위, '11년에는 세계 9번째로「무역 1조 달러 시대」개막

* 우리나라 최초 원전(세계 6번째)·초음속훈련기 T-50(세계 6번째) 수출 성공

➪ 유망 신흥국으로의 수출 다변화와 FTA를 활용한 선진 틈새시장 개척 등이 주요한 과제

4 **(에너지·자원)** 해외 자원에 대한 지배력을 더욱 확대

○ 자원부국과의 윈-윈 파트너십, 생산광구·해외기업 인수 등에 힘입어 석유·가스, 6대 전략 광물의 자주개발률 큰 폭 상승

* 석유가스: (`07) 4.2% → (`10) 10.8%, 6대 전략 광물: (`07) 18.5% → (`10) 27.0%

* `09년 처음으로 우라늄 자주개발 물량 확보, 新산업의 주원료인 리튬, 희토류 등 희유금속 사업 진출

○ 치열한 자원경쟁 속에서도 신흥국 진출·유망광구를 선점하여 미래를 위한 에너지·자원 확보 기반 한층 강화

* 세계 최대수준 석유매장국 이라크(`08)와 UAE(`11)에 진출기반 확보, 미래 잠재력이 큰 북극권·비전통(오일샌드, 셰일가스 등) 유전 신규 진출

➪ 9.15 정전사태를 계기로 에너지 수급체계 전면 재점검 필요

* 최근 이상기온 현상이 잦고 '13년까지 준공예정 대형발전소가 없어 당분간 에너지 수급불안은 지속될 우려

5 (미래준비) 글로벌 트렌드에 대응, 新성장동력을 착실히 준비

○ 융합 신시장 창출을 위한 법적기반을 확보(산업융합촉진법 제정, `11.4), Fast-Track 인증제* 도입(`11.10) 등 융합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 개별 법령상의 기준 미비 등으로 제품출시가 지연되는 융합 신제품에 대해 최대 6개월 이내에 인증절차를 거쳐 출시 가능

○ 저탄소·녹색경제 실천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등 그린에너지산업의 성장동력화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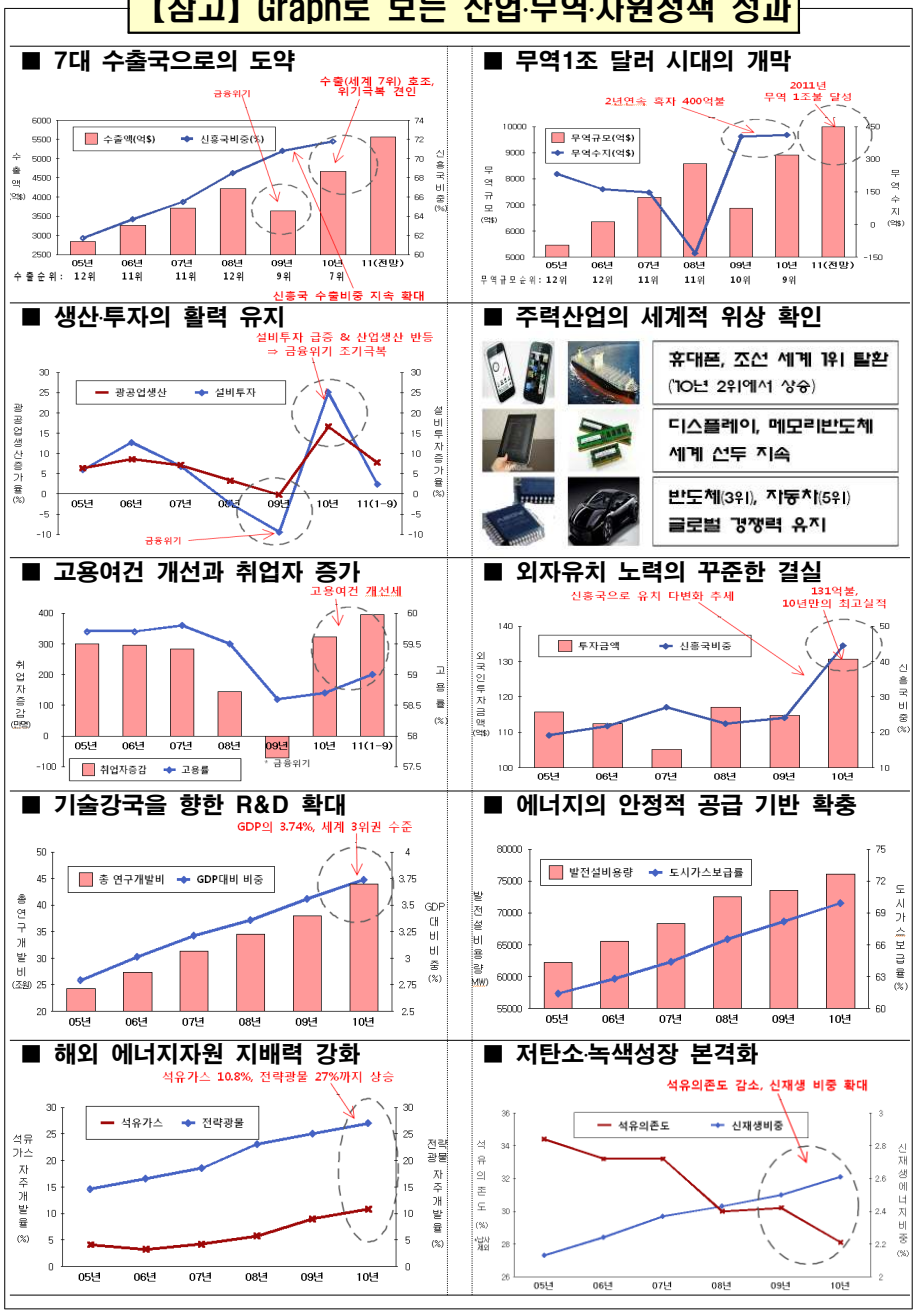
* 산업·발전 부문 366개 관리업체에 대한 '12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확정(`11.10) [산업] 4.7백만톤=전기차 350만대 도입, [발전] 3.6백만톤=원전 1기(1,000MW) 건설

○ 디자인*, 지식서비스산업 등 미래 유망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한 기반 구축

* 디자인 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11.4) 등

➪ '12년은 신성장동력 추진 4년차로 성과창출에 박차를 가해, 미래 유망성장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필요

【참고】 Graph로 보는 산업·무역·자원정책 성과



2 대내외 환경과 2012년 정책방향

가. 대외 환경

1 **(글로벌 리스크)**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변동성 확대

○ 금융위기 여파와 유로 재정위기 확산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현실화 우려와 금융부문 불안 지속

2 **(경쟁양상)** 지식고도화, 스마트 혁명 등으로 글로벌 경쟁양상 변화

○ 개방·참여 중심의 집단지성이 부각, 인간중심의 기술 부상과 함께 개별 기업이 아닌 산업 생태계간 경쟁이 치열

○ 특허자산과 혁신기술, 희토류 등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지식·자원에 대한 쟁탈전 격화

3 **(녹색경제)** 기후변화 가속화로 저탄소·녹색성장 압력 가중

○ 온실가스에 대한 효과적 감축방안 논의를 위한 새로운 국제 기후변화 협상체제 구축 가능성 증대

* 교토의정서에서 합의한 온실가스 1차 의무감축 이행기간 2012년 만료

○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 급부상, 녹색산업에서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각국의 투자경쟁 본격화

4 **(신흥시장)** 美·中 체제 아래 신흥시장으로 경제중심 이동

○ 중국이 '세계의 시장'으로 급부상하며 미국시장을 점차 대체,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

○ 브릭스(BRICs)와 시베츠(CIVETS)* 등 신흥시장이 세계 경제성장을 견인할 유망시장으로 부상

* CIVETS: 콜롬비아, 인니, 베트남, 이집트, 터키, 남아공 등 6개국

나. 국내 환경

1 **(실물 리스크)** 글로벌 재정위기가 실물경제에 전이 가능성

○ 금융·외환시장의 큰 폭 변동성과 함께 우리경제의 성장축인 제조업, 수출 등 실물경제 위축 우려

○ 고도성장한 과거와는 달리 성장여력 약화로 성장세 점차 둔화

* 年평균성장률(%): ('86-'90)10.4→('91-'95)7.9→('96-'00)5.2→('01-'05)4.5→('06-'10)3.8

2 **(양극화)** 중소기업의 체감경기 악화 등 경제부문간 격차 여전

○ 비교적 양호한 경제지표에도 물가불안과 자금난 등으로 가계·중소기업 체감경기는 점차 악화, 대-중소기업간 격차도 지속

* 소비자심리지수: ('11.1월)108→(11월)100 * 中企경기실사지수: ('11.1월)87→(11월)80

3 **(新자본주의)** 공생발전하는 새로운 자본주의 필요성 증대

○ 위기 이후* 승자독식형 자본주의를 반성, 성장과 복지를 아우르는 '따뜻한 자본주의'가 시장경제의 새로운 대안

* 금융재정위기를 통해 성장위주 신자유주의와 무분별한 복지포퓰리즘의 한계 노정 경험

4 **(청년실업)** 청년인력을 흡수할 매력적인 일자리창출 부족

○ 전반적 고용 개선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신규 취업은 정체

* '11.3분기 취업자(전년 동기비 증감, 천명) : (전체)363, (20대)△18, (30대)△83

○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층은 중소기업과 산업단지내 취업을 기피하는 등 인력수급 불일치도 심화

5 **(Big FTA)** 한-미·EU FTA 체결로 FTA 가속화의 모멘텀 확보

○ 한국과 거대 경제권과의 FTA 체결 이후, 한국을 중심으로 중국, 일본 등 인접경쟁국의 FTA 체결 기회 증가 예상

* 협상중인 FTA 7건(12개국), 체결을 위한 여건 조성중인 FTA는 12건(33개국)

다. 정책 대응과 미래 비전

◇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한편, 일자리창출과 투자 활성화, 미래 성장동력 확충 등 우리 경제의 활력 재충전

◇ 이명박 정부 임기내 완료를 목표로 한 정책과제는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미래를 위한 준비도 착실히 추진

"온 국민이 행복한 2조 달러 경제 조기 실현"

어떤 위기에도 흔들림없이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리며 공생발전 지속

1 실물경제·에너지 리스크에 총력 대응

- 실물경제 둔화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
- 에너지·자원 수급 안정화에 총력

2 1조 달러 무역에 걸맞는 따뜻한 행정

-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고용 창출
- 서민생활 보호와 안정화

3 2조 달러 경제를 여는 성장전략

- FTA 중심국가로 도약하여 드넓은 세계 시장 확보
- 함께 가는 공생발전 산업생태계 조성
- 멀리 보는 미래 성장동력 확충

Ⅱ. 실물경제·에너지 리스크에 총력 대응

우리경제가 당면한 상황

◇ 유럽 재정위기의 확산 등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지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기 하방위험도 증가

○ 국내는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되고 생산 증가세 하락, 설비투자가 위축되는 등 실물경제 둔화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

<대외 불확실성>



<실물경제 둔화 가능성>



◇ 고유가 등 원자재 가격불안이 지속되고 국가간 에너지·자원 쟁탈전이 격화되면서 에너지 수급 불안요인도 상존

➡ 다가올 위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 없이는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위축될 우려

* 잠재성장률 추이(%, 한국은행): (`01~`05)4.4 → (`06~`10)4.9 → (`11~`20)4.3

○ 2012년 최우선 대응 과제

□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물경제 둔화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의 투자를 촉진**

□ 산업의 근간이 되는 **에너지·자원 수급 안정화**에 총력

Ⅱ-1. 실물경제 둔화에 선제적 대응

1 실물경제 위기관리체제 가동

◇ 무역1조 달러의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실물경제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기 대응에 총력지원

□ **(실물경제 총력지원체제 구축)** 실물경제대응 T/F 구성·운영

○ 산업 협회·단체 등과 Hotline을 개통하여 국내외 실물경제 전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

○ 비상체제 본격화시, '실물경제종합 지원단'을 설치하고 현장 밀착형 총력지원 전개

□ **(수출리스크 대응)** 업종별·지역별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즉시 해결 지원

○ 수출 주력업종에 대한 수출입 실적 점검과 수출 촉진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 수출입 동향 점검회의' 운영(반기별)

* (주재) 장관, (구성) 업종별 협회·단체, KOTRA 등 수출 지원기관, 기업

○ 무역보험 확대*로 신흥시장 진출 리스크를 완화

*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 진출기업 지원(억$): (`11)787 → (`12)862

□ **(민간 R&D 투자 활성화)**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기술 장벽을 해소하고, R&D 세제 일몰 연장 등 추진

□ **(원자재)** 수급·가격 변동에 체계적으로 대응

○ 석유, 철광석 등 주요 16개 품목의 상시 경보시스템(WACS)* 도입

* WACS : Warning and Control System

○ 희유금속의 비축 확대('11년 13.3일분 → '12년 19.2일분)

2 기업이 경제 어려움 극복에 앞장서는 여건 조성

◇ 기업들이 과감하게 투자 할 수 있도록 애로 요인을 해소하고, 고용을 유지·창출할 수 있도록 기업환경* 개선

* 기업환경 평가 순위(세계은행) : ('08)23위 → ('09)19위 → ('10)16위 → ('11)8위

□ **지역별 기업현장 방문 등 애로사항 점검활동 강화**

○ 기업 현장방문 등을 통해 투자 장애 요인을 발굴하고 범정부 차원의 규제·제도 개선 추진

□ **신성장동력 등 新산업 분야 금융지원 강화**

○ 신성장동력펀드내 초기 사업화 지원을 위한 R&BD 전문투자펀드* 확대

* R&BD펀드/전체 신성장동력펀드(누계,억원): (`12)500/10,000 → (`13)1,000/11,000

○ 우체국 금융을 활용, 신산업 관련 금융상품에 투자('12년 약 1,000억원)

□ **지역투자 보조금과 맞춤형 산업입지 공급으로 지역투자 촉진**

○ 투자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여 기업의 지방 이전과 신·증설 투자 유도

* 보조금 지원 실적이 저조한 지역의 지원 비율 상향(입지보조:40%→45%, 설비투자보조:10%→15%)

○ 기업의 수요가 많은 중·소규모 산업단지 공급을 확충

* `12년 4개 단지(양주, 이천, 김해, 원주) 준공, 1개 단지(아산) 착공

□ **경제자유구역내 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 경제자유구역내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조세감면 등 제도개선 추진

□ 해외 진출 우리기업의 국내 U턴 지원

○ 국내 투자환경 개선 홍보를 강화하여 국내로의 U턴 촉진

* 중국 진출 기업대상 설명회 개최 등 집중 홍보 추진

○ U턴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화하고 국내정착을 돕는 One-Stop 서비스** 제공

* 현행 소득세·법인세 감면 일몰시한을 연장하는 등 추가적인 지원방안 강구

** KOTRA, 산단공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현지사업 철수·이전, 통관 등을 종합 지원하고, U턴 기업 지원 가이드북 등 발간

□ 기업이 고용을 유지·창출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R&D 인적자본의 투자 비중을 제고*하여 연구 인력 고용 확대

* ('10) 30% → ('12) 40%

○ 고용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수출·무역보험 지원 우대*(당초 '11년 종료 예정이던 지원을 '12년까지 추가 연장)

* (종업원 수 50명~300명) 전년 대비 20% 이상 또는 15명 이상 고용이 증가한 기업, (300명 초과) 전년 대비 10% 이상 고용이 증가한 기업

** 보험료·보증료 할인(10~20%), 무역보험 한도 2배 이내에서 우대

○ '09년 「일자리 지키기·나누기」 경험을 살려 기업의 고용유지 분위기 확산

□ 상반기중 지식경제부 재정 조기 집행으로 경기 활성화 촉진

○ 주요 사업비(약 12조)의 63.9%*를 상반기중 조기 집행하고, 일자리 창출·SOC 사업 등은 65% 조기 집행을 목표로 추진**

* 지식경제부 조기집행 목표는 정부 목표(60%)보다 높은 수준

** 재정집행점검단(단장:기조실장)을 구성하여 재정 집행실적 주기 점검

II-2. 에너지·자원 수급 안정화에 총력

1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체계 실현

가. 전력수급 시스템 안정화

◇ 수요관리 강화, 공급능력 확충, 전력설비·계통 안정화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전력 공급

□ 안정적 예비전력 유지를 위해 강력한 수요관리 추진

○ 대규모 사용자*를 중심으로 피크 시간대의 전력 사용량 감축**

* 1천kW이상 1만4천개소 대상, 동계 오전 10-12시/오후17-19시 사용량 10% 감축

** 업종별 조업 특성을 고려하여 피크주간 집중 감축, 계열사 동반감축, 토요일 요금경감 등 다양한 감축방안 제시

○ 기업들의 자발적인 전력 수요 감축 프로그램 참여 확대

* 인센티브 등을 통해 참여기업 및 감축량 확대 (동계 약 500만kW 확보)

□ 전력 공급능력을 지속적으로 확충

○ 신규 발전소 조기 준공, 발전소 폐지 연장, 정비계획 조정 등을 통해 단기 공급능력 최대한 확보

* 동계 약 290만kW 확보 (조기준공 80만, 정비조정 186만, 폐지연장 24만)

○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최근의 수요증가 추세를 반영한 중장기 공급능력 확충방안 마련

□ 전력설비 관리 강화를 통해 설비 및 계통안정성 확보

○ 전력설비(발전소, 변전소, 송전선로 등)에 대한 집중 점검 및 관리 강화를 통해 전력공급 차질 최소화

* 동계중 전국 232만개소 전력설비 전면점검 및 발전소 책임운영제 실시

○ 전력 기자재 납품, 시공, 교체 실태 점검을 통해 제도 개선

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체계 실현

◇ 중장기 수요 예측에 기반한 에너지원별 공급 계획 수립·저장 시설 확충, 안전 최우선의 원전 운영 등 안정적 수급기반 강화

□ **(원전)** 안전성 강화를 최우선으로 원전 적기 건설·운영

○ 일본 사고를 계기로 중대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 분야 R&D* 확충과 원전 안전성 강화 대책 후속조치 지속 추진

* 안전성 향상 R&D : (`11) 315억원 → (`12) 500억원

○ 원전 적기 건설·운영*, 방사성 폐기물·사용후 핵연료 관리 강화**

* 건설중 원전(신고리 2호, 신월성 1호) 적기준공·운영, 신규부지 선정(`12.하)

** 중저준위 방폐장 1단계 준공(`12.하), 사용후 핵연료 관리 기본방침 수립

□ **(석유)** 국내 석유제품의 소비패턴 변화(등유 수요 감소, 휘발유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제3차 정부비축계획 조정* 추진

* 등유(45일, 2,477천B)→(16일, 883천B), 휘발유(4일, 891천B)→(6일, 1,340천B)

○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을 위해 상업적 저장 시설(여수·울산) 건설

□ **(가스)** 저장탱크 3기(평택2, 통영1, 54만㎘)를 완공하여 저장 비율을 확대(10.4%→ 12.3%)하고 삼척기지 5기(100만㎘) 착공

* `16년까지 15기를 추가 건설하여 저장 능력을 1,106만kl로 확대할 계획

○ 다수의 공급선과 LNG 도입협상을 추진하고 남북러 가스관 사업 추진*을 통해 도입국가·방식 다변화 도모

* `17년 북한경유 러시아 PNG 도입개시 목표로 가스공사와 가즈프롬간 서명(`11.9)

□ **(석탄)** 연탄용 무연탄 확보를 위해 발전소 무연탄 공급량을 조절하고, 수요 부족분은 비축탄과 수입무연탄으로 충당

○ 수급 불안을 사전에 예측하여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수급 관계기관 회의 개최, 수급동향 점검반 운영 및 석탄·연탄 통계 확보

2 국민이 함께하는 에너지절약

◇ 모든 경제주체가 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그물망형 전기절약 대책을 마련하고 대국민 참여 촉진

□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그물망형 에너지절약대책 실시**

○ (에너지 사용제한) 대형 건물 난방온도 제한(20℃이하), 난방기 순차 운휴, 불요불급한 야간 네온사인 조명 소등 추진

○ (공공기관 절전 선도) 강화된 온도제한(18℃), 피크시간(11~12시, 17~18시) 난방 중단, 내복 입기를 생활화하고 개별 난방기는 사용금지

○ (전열기 효율규제) 전력낭비가 심한 저효율 전기제품 사용을 제한하고 에너지 비용 표시제*를 전면 시행하여 에너지 절약 유도

* 에너지효율 등급표시를 하지 않는 전기온풍기·스토브·장판 등에 사용량에 따른 에너지 소비비용을 표시

□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생활 문화의 정착**

○ (범국민 절전) 자기절전계획 선언, 전국민 전기절약 행동요령을 실천하여 온 국민이 연간 전력 5% 자율 절전 추진

○ (범경제계 절전) 연간 5% 절전 실천 사회적 협약 체결('11.11.30)에 따른 업종별 세부이행 방안 수립 및 자발적 이행 추진

*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범경제계 에너지절약 운동본부」에서 자율적 이행방안 수립 독려 및 이행상황 점검 추진

○ (소통 강화) 전력수급상황을 미리 알리고*(홍보), 자율 실천하고(참여), 성과 점검(환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에너지 절약 생활화

* 전력수급 정보제공(전력예보, 전력수급시계 등), 공익 광고와 사회지도층의 SNS를 활용한 절전 동참 캠페인 실시, 인터넷 홍보

3 국내외 에너지·자원 개발·확보

가. 해외자원 자주개발 확대

◇ 자주개발률 목표* 달성으로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인프라를 새로이 정비하여 해외자원개발 역량 강화

* (석유가스) ('10) 10.8% → ('12) 20%, (6대 광물) ('10) 27% → ('12) 32%

□ 전통적인 전략 지역 진출 확대와 유망 지역과의 협력 강화

○ 旣확보 이라크 광구 생산·증산* 추진과 함께 4차 입찰참여('12.4), 쿠르드 탐사광구 시추와 UAE 미개발 광구 탐사작업 지속 추진

* 주바이르는 `11년 25만b/d에서 35만b/d로 증산, 바드라는 `13년, 아카스·만수리아는 `15년 생산 개시 목표로 추진

○ 중요성이 높아진 비전통 자원 선점을 위해 「비전통 자원 개발전략」 수립, 중국(셰일가스), 베네수엘라(초중질유) 등과 협력 강화

□ 석유공사 대형화의 성공적 마무리와 포스트 「3020」 전략 수립

○ 신규 자산인수, 기존 자산 생산성 제고 등을 통해 '12년 말까지 일일 생산량 30만 배럴, 매장량 20억 배럴 목표 달성

○ 탐사역량 강화, 피인수 기업 성과 제고, 추가 자산인수 등 대형화 이후 글로벌 석유기업으로서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 마련

* 석유공사 대형화 성과평가와 이를 활용한 「포스트 3020」 전략 수립(`12.상)

□ 미래 산업구조 변화를 감안한 광물 자원개발 경쟁력 강화

○ 광물공사를 글로벌 메이저 기업으로 육성하고 우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광물개발강국 도약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12.상)

○ 희토류 등 광물자원의 분리·정제 소재화 기술 확보를 위해 Pilot Plant 건립 등 인프라 마련

나. 국내 자급능력 확대

◇ 국내 자원에 대한 탐사활동을 확대하고, 도시광산을 활성화하여 해외 에너지 자원개발 성과를 보완

□ 국내 자원에 대한 탐사 활동을 강화

○ 홍천, 충주, 양양, 서산 등 희토류 부존 유망지역 정밀탐사

○ 제2의 '동해 가스전' 발견을 위해 국내 대륙붕 탐사* 추진, 국내 최초 심해지역 시추**를 통해 원유 탐사의 지평 확대

* 6-1광구 남부지역(대우인터내셔널), 6-1광구 중부지역(STX에너지)

** 석유공사와 호주 우드사이드社 8광구 심해시추 추진 예정(`12.4)

□ 국내 자급기능 보완을 위한 도시광산 활성화

○ (기술개발) 산업수요, 자원 수급 전망 등을 분석하여 20대 도시광산 전략 금속을 선정하고 기술 개발을 지원

* 금속자원 회수·정련·고순도화 R&D 지원(`12년 95억)

○ (자원 수거) 전국 우체국, 산업단지공단 지역본부 등을 수거장소로 활용*하고 수거 대상 품목을 확대**

* 수거장소 : (현) 전국 우체국 → (개선) 전국 우체국, 산단공 지역본부

** 대상품목 : (현) 폐휴대폰 → (확대) 폐전지, MP3, 전자사전 등 소형전자제품

○ (통계기반) 금속별 산업 全과정 통계*, 생산량 통계** 등 구축

* 생산 단계별 자원 흐름, 병목요인 분석 등 주요 광종의 흐름을 분석

** 국내 도시광산을 통해 생산되는 금속량을 연도별·반기별 추계

【도시광산】 폐가전 등에 포함된 희소금속 추출, 산업원료 확보
(금광석 1톤에서 금5g 채취 vs 휴대전화 1톤에서 금150g, 은1.5kg 회수)



Ⅲ. 1조 달러 무역에 걸맞은 따뜻한 행정

청년·서민층에 대한 문제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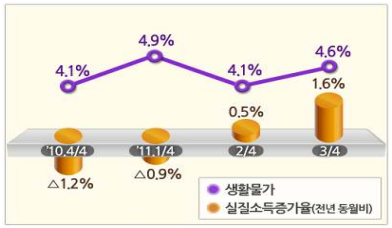
◇ 전반적인 고용사정은 개선되고 있으나, 주된 구직층인 청년들의 취업률은 상대적으로 답보상태

○ 기대수준과 실제 일자리 환경의 미스매치가 가장 큰 원인

* 청년 취업자의 전문·사무직 쏠림과 중소기업 기피현상
(청년선호직장: 공기업 > 대기업 > 전문기업 > 중소기업)

◇ 내수에 의존하는 서민은 무역1조 달러의 성과에서 상대적으로 소외

○ 물가 상승률은 지속 증가하는 반면,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율은 크지 않아 서민들의 체감경기 저조

<청년고용 현황>	<물가와 실질소득 증가율>
	

➡ 청년과 서민층에 대한 더 큰 관심과 배려 없이는 미래성장과 사회통합이 저해될 우려

○ 우리의 과제 : 청년과 서민이 행복한 경제로

□ 감춰진 좋은 일자리 발굴, 일자리 환경 개선, 신서비스업 육성 등을 통해 **청년이 선호하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

□ 유가·물가 안정화, 에너지 복지 확대 등으로 **서민생활 보호**

Ⅲ-1. 청년 일자리·고용 창출

1 청년 일자리·고용 창출 책임 실천

가. 청년에게 질 좋은 일자리(decent job) 제공

◇ R&D지원, 중견기업 육성 등을 통해 기업의 고용 창출을 촉진하고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을 선도

□ **민간분야 고용창출 지원**

○ (고용창출형 R&D) R&D 사업의 인건비 투자를 최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청년 연구인력 신규채용

* 지식경제 R&D 인적자본 투자 비중 : ('10) 30% → ('12) 40% 목표 (獨 58%, 日 40%)

○ (World-Class 300)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견기업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양성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 글로벌 전문기업화 지원(연간 선정기업수) : (`11)30개社, (`12)60개社

○ (취업연계) 마이스터고·특성화고 학생의 기업 인턴십과 취업연계* 확대, 이공계 대학생 고용조건부 장학금** 지원

* 권역별 직업교육지원센터(서울, 인천, 부산, 창원, 광주, 충남) 운영
** 장학금 수혜시 장학금 지원 기업에 근무, 약 1,000명 지원(정부·기업 매칭)

□ **공공기관 신규채용을 통해 질 좋은 일자리 창출**

○ 한전 등 산하 60개 공공기관 '12년 정규직 신규채용(3,500여명)

○ 우정사업본부와 책임운영기관인 특허청의 인력 채용(500여명)

나. 감춰진 좋은 일자리 찾기와 고졸 산업인력 확대

◇ 청년층에게 알려지지 않은 유망 기업(중소·중견)을 발굴·홍보하여 취업으로 연계하는 한편, 고졸 인력의 취업 기회도 확대

* (성공사례) "WC300 기업에 선정된 후, 과거와 달리 연구원 00명 채용에 2,000명 이상 지원, 기업 이미지 제고가 청년 유인의 원인"(자성코어 제조 A사)

□ 글로벌 전문기업 등 숨겨진 좋은 기업 발굴

○ (기업 발굴) World-Class 300, 세계일류상품 기업, 지역선도기업 등 발전 가능성이 높은 우수 중소·중견 기업 알리기

○ (홍보) 정보포털 개설* 등을 통해 취업정보를 공유하고, 대기업과 같이 공채 시즌 정례화

* 중견기업 종합정보: 중견기업 지원제도, 우수중견기업 소개, 취업정보 등 제공

○ (취업연계) 발굴된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채용박람회 개최, 기업현장 탐방 등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계기 마련

□ 고졸 산업인력을 위한 기술나눔과 성공의 희망사다리 강화

○ (기술나눔) 테크노파크·생산기술연구원 등의 연구 장비와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현장감 있는 교육 지원

* 예: 지역별 TP 연구장비를 활용하여 마이스터고 학생의 현장실습 지원

○ (취업지원) 희망이음 프로젝트* 등을 활용하여 마이스터고·특성화고 학생의 全주기 지원(기업탐방-인턴십-채용) 프로그램** 운영

* 청년들이 지역우수기업을 탐방하고 기업정보를 수집·공유하는 프로젝트
** 지역 우수기업-마이스터고 학생간 인턴십 매칭 지원 등

○ (차별해소) 공공기관부터 성과와 능력에 따라 일정 기간(4~7년) 이후 고졸자와 대졸자를 동등 대우하고 민간으로 확산

2 청년 기피 일자리를 매력적인 일자리로 전환

가. QWL 밸리의 성공모델 창출·확산

◇ 산업단지를 청년들이 일하면서 배우고 즐길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재창조하는 QWL밸리 조성 사업의 성공적 정착과 확산

□ 대학 캠퍼스, 기업 연구소를 집적하는 산학융합지구 조성 확대

○ 반월·시화*, 구미, 군산 산업단지에 산학융합지구 조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12년 3개 산업단지에 추가 조성(`11년 3개 → `12년 6개)

* '12.10월 반월·시화 산업단지에 QWL캠퍼스, 기업연구관, 문화센터 조기 준공

○ QWL 캠퍼스내 계약학과 시범 개설(산업기술대 등 3개, `12.봄학기)

□ 산업단지에 부족한 복지·편익 시설 확충과 이미지 개선

○ QWL밸리 시범 산업단지에 문화·체육 시설과 보육 시설을 확대*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개선** 추진

* '12년 시화드림타운, 남동근로자 복지타운 등 9개 문화·체육시설 확충 사업 추진, 남동 산업단지 등에 총 5개 보육시설 준공
** 산업단지 입주기업 통근버스 운행 및 시화단지 교통체계 개편 정책연구 추진

○ 산업단지의 명칭을 변경*하고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 `11년까지 9개 산업단지의 명칭변경 완료, `12년 3개 단지 추가 명칭변경 계획

□ 전국 주요 산업단지에 QWL밸리의 확산 기반 마련

○ 산업단지별 특성 분석을 토대로 QWL 확산 로드맵* 수립(`12.상)

* 산학융합지구, 문화복지시설 투입형, 인프라 투입형 등 확산 모델 발굴, 펀드, BTL 방식 등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 마련 등

○ 민관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여 QWL밸리 사업 추진역량 강화

* 정부, 지자체, 산단공, 고교·대학, 입주기업 등 협의체

나. 뿌리산업의 청정·첨단화

◇ 공정의 청정·첨단화로 작업여건 개선과 근로 복지증진, 뿌리산업을 3D 업종에서 일하고 싶은 업종으로 전환

□ **(작업환경)**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청정·첨단화 공정 모델을 구축하고, 뿌리기업에 확산 지원

○ 금형, 주조 등 6대 분야별 시범사업을 통해, 분야별 특성에 적합한 공정의 청정·첨단화 모델 시스템 구축

○ 도금(증착기술), 주조(철→마그네슘 경량화)와 금형(2D→3D설계) 등 공정·소재에 대한 첨단화와 친환경 기술개발 등 추진

【사례】 청정표면처리 협동화단지 조성

·반월·시화 산업단지 도금 관련 6개사가 조합을 결성, 공동으로 폐수처리시설 등을 갖춰 근무환경 개선('12.3월 준공 예정)


(외관)


(내부)

<표면처리업종의 근무환경 개선 사례>

□ **(복지환경)** 대기업과 뿌리기업의 복리후생 격차를 완화하고, 청년층의 요구 수준에 부합하는 복지 지원

○ 단체보험 지원, 보육시설 확충 및 휴양 리조트 공동 구매 등 복지 프로그램과 재원 조성 방안을 포함한 복지 지원책 마련

* 대기업-협력기업 등이 출연하여 뿌리산업 지원 펀드조성, 뿌리산업 근로자 퇴직연금 지원을 위한 '뿌리기업공제조합' 설립 등 검토

3 청년 눈높이에 맞는 전문 일자리 확대

가. 주력 산업과 에너지·녹색 산업 연계 서비스

◇ 아직 국내 산업기반은 약하지만, 경쟁력 있는 주력산업과 에너지·녹색 산업과 연계된 유망 신서비스업 일자리 창출

□ **(레저요트)** 고부가가치 요트시장 진입을 위한 서비스기반 구축

○ 요트 R&D, 중소기업 요트생산 지원을 위한 개발센터 구축, 디자인·유통 전문인력 양성 등 인프라 조성

* 서남권 개발센터 구축('11~'14), 융합과제 R&D 우선지원(예:디자인+선박용 항해통신장비=요트용 항해통신장비), 부산·전남 등 거점지역 인재양성

○ 마리나 확대, 중고 요트 수입제도 개선 등을 통해 국내시장 조성

□ **(기계 서비스)** 5년내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 가능한 전략품목을 육성하고 기계 관련 고부가가치 서비스 경쟁력 강화

○ 장비유통체계 구축, 유지보수(A/S), 재제조(Remanufacturing), 컨설팅, 교육, 금융 등 토털 솔루션(Total Solution) 제공

□ **(신재생에너지)** 빠르게 성장하는 신재생에너지 관리 산업 육성

○ 기술자격증 도입으로 태양광·풍력 발전설비 기사 등 전문 인력 배출

* 태양광분야의 신재생에너지발전기사 도입(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완료 `11.11.23)을 시작으로 향후 풍력 등 확대검토

○ 신재생에너지 A/S 분야 등에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

* 태양광·태양열 A/S 기관 지정 시에 사회적 취약계층 고용여부 고려 등

□ **(녹색) 에너지절감·온실가스 감축 컨설팅 신사업 모델 발굴**

○ IT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절감방안 컨설팅,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및 사후관리 분야 신사업 발굴

* (예) 유비쿼터스 기반 계측기를 활용한 공장에너지 관리시스템 구축 등

나. 선진국형 新서비스업

◇ IT, 컨설팅, 시험인증 등 전문 서비스업을 육성하여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확대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민간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육성 지원

○ 공공기관의 IT자원 중 민간 클라우드로 사용 가능한 분야*를 발굴하여 시범 서비스 시행('12.상)

* 예 : 일회성 업무(이벤트), 사용량 예측이 불가한 업무(원서 접수 등)

○ 국가 R&D 수행시 필요한 IT자원을 기관들이 개별 구입하지 않고, 클라우드 서비스로 활용

□ **(국제산업 컨설팅)** 우리 산업발전 노하우에 대한 개도국의 컨설팅 수요를 바탕으로 컨설팅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 유·무상 원조(ODA), 국제기구 조달사업 등 공적시장을 활용하여 해외진출 네트워크 구축

* 컨설팅 기업의 국제기구 조달사업 단계별 수주지원·조달 설명회 개최

○ 「국제산업컨설팅포럼*」 활용 수요 발굴**·정보교류, 공동 사업 추진

* 구성: 민간 컨설팅 기업, 한전 등 공공기관, ETRI 등 연구기관 등
* (예) [이디오피아] 산업단지개발 [카자흐] 신재생에너지 개발 [알제리] 금융인프라 확충 등

□ **(시험인증 서비스)** 시험·인증 서비스 산업의 자생적인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시장 확대 추진

○ 수입 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R&D 투자*를 확대하고 시험장비 공동 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시험연구기관 시험설비 구축사업 추진 (`12년 76억원)

** 출연연구원과 테크노파크(TP)를 중심으로 1,600여개 중소 시험기관의 장비 공동 활용체제 마련

Ⅲ-2. 서민생활 보호와 안정화

1 서민물가 안정에 주력

◇ 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유가, 공산품 물가 안정화를 위해 유통·물류 구조 개선

□ **시장경쟁 확대를 통해 석유제품 가격인하 유도**

○ (알뜰주유소) 경쟁력 있는 새로운 공급자(석유공사)와 판매자를 통해 시장 가격인하*를 선도하는 알뜰주유소 확대**

* 공동구매, 셀프화, 사은품 미지급 등으로 60~100원 가격인하

** 확대계획 : 수도권과 대도시 위주로 확대하여 소비자의 체감도를 제고
(`12) 700개 → (`15) 1,300개(전체 주유소의 10%)

○ (가짜석유 근절) 자진 신고기간 후 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신고 포상제 강화로 불법거래 근절

* 원스트라이크아웃(고의 판매 1회 적발시 영업정지), 과징금(5천만원→1억원)·포상금(20만원→50만원) 상향조정

○ (석유거래 투명성 제고) 다수 판매자와 구매자가 온라인에서 석유제품을 매매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시장 개설('12.상)

□ **유통구조 개선과 실용 소비문화 구축을 통해 공산품 물가안정**

○ (중소유통·물류체계 개선) 소형 점포간 공동물류 활성화*로 구매력 강화, 우체국 등과의 연계를 통해 유통 효율화**

* 중소상인 공동물류 활성화 방안 수립(`12.하)

** 우체국쇼핑 중소상인 상품 판매 확대: (`11)1,900억원 → (`12)2,050억원

○ (실용소비) 소비자 가격 표시 의무제를 온라인 매장까지 확대하고 대여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가격표시제 고시 개정('12.상), 대여서비스 표준 계약 마련(`12.하) 등

2 따뜻한 에너지 복지 확대

◇ 에너지 가격 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에너지 구입 부담을 완화하여 서민층의 따뜻한 겨울나기와 효율적 에너지 소비를 지원

□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 연탄쿠폰(`12년 141억원) 지속 지원, 소년·소녀 가장 등에게 긴급 난방유(200ℓ) 지원* 확대

* ('11)민간모금 50억원(석유협회 사회공헌기금) → ('12)민간모금 + 정부예산 81억원

○ 저소득층 가구의 요금미납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중단을 일시 유예*하여 최소한의 에너지 이용권 보장

* (전기) 동절기(12~2월) 공급중단 유예, (가스) 동절기(10~5월) 공급중단 유예

□ 서민층 에너지 효율·안전 시설 개선

○ 단열 시공·고효율 보일러 설치*와 LED 조명 교체지원**으로 에너지절약·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에너지 복지 실시

* 저소득층에너지효율 개선사업: (`11)195억원 → (`12)311억원
** 기초생활수급자·전통시장 LED 교체사업: (`11)150억원 → (`12)150억원

○ LPG가스 안전시설 지원 대상 확대(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11)159억원, 8만가구 → (`12)185억원, 9만 가구 지원계획

□ 에너지 구입비용 절감에 기여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 공공임대주택, 복지 시설 등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12년 235억원)

○ 국민·기업 등의 참여*를 통해 취약계층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하는 '녹색기부' 도입

* 참여자에 기부금 세제혜택·녹색에너지 파트너십 스티커 발부 등 인센티브 제공

3 서민생활 밀착형 지원 확대

◇ 서민들과의 접점에 있는 우체국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등 서민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적 책임경영 실천에 솔선수범

□ 대표적 서민인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강화

○ 우체국 유휴 공간을 중·소상인의 물류 공간으로 임대

* 우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물류 창고 임대 확대(247개 → 270개)
* 중소상인 상품 우체국 보관 → 소비자 주문 → 우체국 택배로 바로 발송

○ 전통시장·골목슈퍼 이용시 월 최대 1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체크카드*를 출시하여 소비자들의 시장·골목슈퍼 이용을 촉진

* 추가혜택: 우체국 쇼핑 이용시 월 최대 1만원 할인, 우체국예금 금리우대 등

□ 친서민 금융서비스 확대

○ 저소득층·취약계층에 대한 금리 우대(최고3~7%)와 수수료 면제*, 농어촌 주민의 금융 서비스 접근성 개선**

* (금리우대) 새봄 자유적금, 더불어 자유적금 등, (수수료)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서비스 수수료 전액면제
** 농어촌, 벽·오지 금융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해 창구망 개방 확대

○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만원의 행복보험' 개선 보급

□ 우체국의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회적 공익역할 강화

○ (현장밀착형 공헌활동) 집배원 365 봉사단, 우정사회봉사단의 불우 이웃 지원*, 나눔 행사 확대

* 무의탁 노인 무료급식, 소년소녀가장 장학금 전달, 기초생활수급자에 생필품 지원 등

○ (집배원 품격향상) 서민이자 공무원인 집배원의 품격을 높이고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유니폼* 개선('12.하)

* 기능성, 디자인을 고려한 유니폼으로 전면 교체

4 안전한 국민 생활 보장

◇ 국민생활과 직결된 생활용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위해·불량 제품에 대한 대응조치를 강화

□ 효율적인 제품안전 조사 시스템 운영 및 리콜조치 실시

○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위해 우려제품에 대한 선제적 안전성 조사*와 리콜과 불량제품 유통차단** 등 대응조치 실시

* 한국 소비자원, 소비자 단체 등과 위해정보 공동수집·분석 등 선제 조사

** 경찰청 등과 불법제품 단속 매뉴얼 공동작성 및 상시 대응체계 구축, 새로운 제품과 우리나라에서만 사용되는 제품 집중 관리

□ 안전관리제도의 상시 개선

○ 신개발 전기용품, 신규 유해물질이 함유된 공산품의 출시 등 공급과 수요의 환경변화를 제품 안전관리제도에 신속 반영

* 제품안전관리 총괄(지경부), 독성평가(환경부), 인체유해성 검증(보건부) 등

○ 방송통신 정보기기에 대한 안전성 관리의 차질없는 접수·시행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령 개정 및 전자파 적합성 관련 기준 이관 등 추진

□ 제품 안전관리 역량 강화와 시스템 해외 진출

○ 제품 안전 여부 시험·검사 방법 개발*과 국제 기준화 추진

* 부처별 시험기준 통일(가구 등), 고가의 시험장비 구입대체 기준 개발 등 제품안전 애로 공통기술 도출과 R&D지원

○ 우리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를 페루 등 개도국에 수출

* 페루 안전인증기관 설립 지원, 우리나라 인증기관의 중남미 진출 교두보로 활용

Ⅳ. 2조 달러 경제를 여는 성장전략

2조 달러 경제 성장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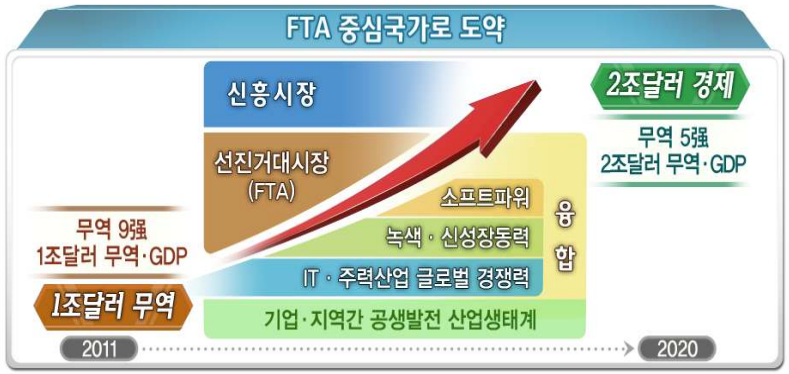
◇ 한-미·EU FTA로 넓어진 경제영토를 최대한 활용하여 선진 시장과 신흥시장 선점 효과를 극대화

◇ 주력산업의 세계적 경쟁력과 IT융합·녹색산업에서 우리의 비교우위를 강화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

* 디스플레이 1위, 조선 2위, 반도체 3위, 자동차 5위, 석유화학 5위

* 녹색성장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녹색주도국으로 명성획득(OECD)

➪ 2조 달러 경제를 향한 **"함께 가고 멀리 보는 정책"** 필요



○ 미래 준비를 위한 과제

□ **FTA를 활용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와 **대-중소기업, 지역-수도권간 동반성장**을 통해 함께 가는 경제 구현

□ **녹색·신성장동력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고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여 미래를 선도하는 멀리 보는 정책 추진

Ⅳ-1. FTA 중심국가로 도약, 드넓은 시장 확보

1 한-미·EU FTA의 활용 극대화 전략

◇ 거대 선진시장과의 FTA를 100% 활용하여 조기성과 창출

□ 편리한 FTA 정보망 구축

○ One-Click 기능의 「통합무역정보시스템」 서비스의 확대*

* 대상국 단계적 확대(`12): (EU) 서비스 제공, (美·인도·ASEAN) 시스템 구축

○ 기업 맞춤형 FTA 원산지 판정·관리 서비스 개편으로 기업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FTA 원산지 관리 시스템 간소화·고도화 개편(`12.하)

□ FTA 이해 제고를 통해 FTA 기회요인 활용 극대화

○ FTA 활용지원센터를 통해 전문교육, 컨설팅·마케팅 전략 지원

* 무협(인력양성, 정보제공), 대한상의(원산지 상담), 코트라(마케팅) 등

○ 수출 중소기업 대상 FTA 지역설명회·박람회 개최

□ 마케팅 총력전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새로운 분야 개척

○ 한·미 FTA 성과 조기창출을 위한 수혜 분야* 수출확대 주력

* (자동차·부품) 「Korea Autoparts Plaza」 개최(5회), 「Auto-Parts Park」조성
(섬유) 뉴욕, LA 한국섬유 특별전 개최, Global Top 섬유전시회 참가
(생활용품) 월마트 등 현지유통망 개척

○ 미국(IT, 국방), EU(철도, 공항) 등 유망 정부조달 시장 공략

* 현지 조달전시회 참가, 주요지역 「조달지원센터(코트라)」를 통한 정보제공

○ 중장기 협력을 바탕으로 항공우주부품, 신재생 에너지 등 하이테크(High-Tech) 분야 수출 유망품목 발굴

2 외국인투자 확대와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 FTA에 따른 국내 투자수요를 적극 흡수하고, 피해가 우려되는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 FTA에서 파생되는 외국인투자 유치의 모멘텀 확보

○ 주요 대한(對韓) 투자국*을 대상으로 상반기중 IR을 집중 개최하고 BRICs, 인니 등 신흥 자본국**으로 유치 활동 다변화

* 미국, EU, 일본 등 현지 IR개최(`12.상) 등
** 인니, 말레이시아, 브라질 등에서 최초로 국가 IR 개최(`12.하)

□ 질 좋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전략적 기반 마련

○ 투자 인센티브 지원 대상을 고용 창출, 고도기술 전파 등 경제 기여도가 높은 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관리·감독을 강화

○ 외국인투자 촉진 펀드의 규모를 확대하고, 유망 산업분야에 대한 투자유치 로드맵* 수립('12.6)

* 녹색기술, 첨단융합 등 분야별 가치사슬 분석을 통해 핵심품목·기업 타겟팅

□ 도입 10년차를 맞는 경제자유구역의 성과 가시화

○ 외국인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해외 학교·병원*을 본격 유치하고, 부동산 투자 이민제를 활용 중국 관광 수요 흡수

*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12.3월 개교예정), 송도국제병원(`12년 병원설계 착수) 등

□ FTA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원 강화

○ FTA별 중소기업 민간품목에 대해 선제적으로 경쟁력 강화

* 민간품목 선정 → FTA효과 모니터링·분석 → 경쟁력강화·무역구제

○ 무역조정 지원 기업 신청·지정 절차 정비, 상담 지원 대상 확대 등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을 통해 구제의 실효성 제고

* FTA 피해기업의 경영개선 지원: (`11) 201.5억원 → (`12) 230억원

3 신흥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 다각화

◇ 신흥국은 고성장을 지속하는 중요한 시장, 2조 달러 경제를 향한 핵심 전략으로 신흥시장으로의 진출 확대

□ 시장 마케팅을 강화하여 잠재 거대 신흥시장 공략

○ 적정기술(AT) 제품* 보급 등 성장 잠재력이 큰 5조 달러 개도국 저소득층(BOP)** 시장 진출

* AT(Appropriate Technology): 현지에 필요하면서도 큰 투자·비용없이 누구나 쉽게 배우는 기술·제품(개인용 정수기(아프리카), 휴대용 온돌기(몽골) 등)

** BOP(Bottom of pyramid): 피라미드의 맨 아래에 위치한 최하 소득계층

○ 아시아 볼륨존(Volume Zone, 연소득 5천~35천 달러의 신흥 중산층, 8.8억명 추산) 시장 공략을 위해 의료관광·화장품 등 신산업 개척

* 개도국 무역관 증설 : (`11) 77개소 → (`12) 85개소

□ 고부가가치의 시스템 수출 확대

○ 신흥국의 대형 SOC건설 붐*에 적극 대응하면서, 고부가의 '자원개발+플랜트' 등 패키지형 자원개발** 시장 진출 확대

* 리비아 등 중동 재건과 러시아·브라질 월드컵·올림픽用 인프라 사업 참여지원

** 우즈벡 수르길 가스전+가스화학 플랜트, 카자흐 아리타우 석유화학플랜트 등

□ 한국의 산업발전 경험을 살린, 개도국과의 신협력 모델 구축

○ 주요 신흥국의 경제개발 계획에 파트너로 참여

* 인니: CNG·농공복합단지·순다대교(205억 달러 규모), 콜럼비아: Look Asia 등

○ 상대국의 산업발전 단계에 최적화된 산업발전 경험 전수와 컨설팅 (중화학공업,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구축, 수출자유공단 조성 등)

【참고】 신흥시장별 맞춤형 협력강화 및 진출 확산

◇ **(상품, 시스템)** 각 지역별 중점 국가와의 협력 강화를 바탕으로 주변 국가로의 파급효과 도출(동남아, 중부유럽)

◇ **(자원개발, 인프라)** 인프라 진출과 자원협력 연계로 안정적 자원 확보와 비즈니스 기회 확대(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등)

□ **(중남미)** 에너지·자원 개발, 플랜트·인프라 건설 사업 진출을 확대, TTC 프로그램(기술/훈련/자문)을 통해 산업의 부가가치 제고 지원

○ 콜롬비아 : 양국 정상간 협력의제(`11.9월)에 대한 F/S 추진*(`12.상)

* Look Asia 프로젝트, 포괄적 전력협력, 녹색성장협력 3개의 메가 프로젝트

○ 페루 : "자원기반 제조업 육성정책"을 활용한 상·하류 패키지형 진출 전략 추진

* 석유·가스개발과 ILO석유화학단지 조성, 페로밤바 철광·철도 개발 등

○ 브라질 : 해양플랜트 관련 기술 교류 및 심해 유전 공동개발 추진

* 삼성중(드릴쉽)-Atlantico조선소·석유공사-Petrobras社(심해시추)간 기술협력 강화

□ **(동남아)** 인니, 베트남과의 포괄적 경제협력을 통한 교역 확대

○ 인니 : 한-인니 경협사무국(`12년 가동)을 통한 경제개발 마스터 플랜(`11~`25) 협력 구체화

* 3대 메가 프로젝트(순다대교, 농공복합산업단지(MIC), CNG 가스전 개발·운송·발전 패키지 협력) MOU 체결 및 사업화 연결

* 마스터플랜 이행 구체화 전략 공동수립 및 협력 프로젝트 발굴 강화

○ 베트남 : 에너지·무역·투자·산업 등 全분야에 걸친 경제 협력 추진

○ 메콩강 경제권*의 개발수요에 대응한 투자 진출 적극 지원

* CLM(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국가와 자원협력위 등 공식채널을 통한 협의 확대

□ **(중앙아)** 산업다변화 정책과 연계한 새로운 협력수요에 적극 대응

○ 중앙아의 자원과 한국의 경험·기술을 결합한 패키지 진출 본격화

＊ 우즈벡 수르길 가스전 개발·가스화학플랜트, 카자흐 발하쉬 석탄화력 발전소, 카자흐 아티라우 석유화학플랜트 건설사업 등 성공사례화

○ 기존 에너지·자원에서 산업·기술까지 협력 분야의 외연 확대

＊ 한-우즈벡 산업자원협력위 확대, 한-카자흐 기술협력센터 설립('11.8)

□ **(중동)** UAE 원전 이후 대규모, 플랜트신재생에너지 수주지원 강화

○ 사우디, UAE, 카타르 등 중동 주요국과 경협채널* 확대, U-health, IT, 신재생 등 유망 품목에 대한 수출 지원 강화

＊ 한-카타르 에너지·산업협력 MOU 체결, 사우디 상공부와 협력채널 신설검토

□ **(아프리카)** 금년 VIP 방문('11.7)을 통해 조성된 한-阿 협력 활성화 모멘텀을 활용하여 에너지·자원, 플랜트 및 무역·투자 진출 확대

＊ 아프리카 성장률(%) : (`95~`00)3.4 → (`00~`08)5.3→ (`09)1.9 → (`10)4.0

○ 한-阿 무역투자 포럼, 산업협력 포럼 등을 통해 아프리카 붐 조성 및 에너지·자원, 건설 대형 프로젝트 수주 지원

○ 남아공을 선두로 알제리, 가나, 모잠비크 등 아프리카 유망국과의 경협채널 운용을 통한 우리기업 애로 해소와 진출 지원

○ 북아프리카 소요사태 발생지역 중심으로 건설·플랜트, 섬유, 의료기기 등 진출 유망 분야를 선정해 경제협력 사절단 파견

＊ 리비아 진출조사단 파견 및 시장 진출 설명회 추가 개최(`12.상) 검토

□ **(중부유럽)** 터키(중동, 북부아프리카, 러시아 등), 폴란드(서·중부유럽) 등 지역 거점 국가와의 산업협력 강화

○ 전자, 자동차, 철강 등 국내 기술 우위의 제조업 생산시설 해외투자를 통하여 인근 지역으로의 우회 수출 전진 기지로 활용

○ 폴란드의 원전 도입 사업, 그단스크 풍력 프로젝트 참여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 지원 지속

Ⅳ-2. 함께 가는 공생발전 산업 생태계 조성

1 대-중소·중견기업 동반성장 문화 정착

◇ **(평가)** 9.29 동반성장 대책을 착실히 이행하여 동반성장 기반을 마련, 대기업의 참여와 중소기업의 체감도 개선

＊ 대기업의 동반성장 투자 확대 : `11년 30대 그룹 1.3조원 투자
＊ 중소기업 체감도 : 동반성장 분위기, 거래 공정성 등 향상(8월 실태조사)

◇ **(과제)** 동반성장 분위기와 모멘텀을 이어나가는 한편, 공생발전의 취지를 살려 동반성장의 저변 확대

□ **진정한 합의에 기반한 자율적인 동반성장 문화 확산**

○ 대기업별 동반성장지수 산정·발표(`12.3)

＊ 56개 대기업별 공정거래 준수 여부, 협력사 지원 정도 등을 종합 평가하고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R&D, 공공 입찰시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

○ 업종별 실무위원회를 통해 산업별 동반성장 이슈 발굴·추진

＊ 전력산업 해외 동반진출, 건설 하도급, SW 거래관행, 대·중소 유통간 동반성장 등

□ **공정거래 준수, 협력사 지원 등 기업의 사회적책임 강화**

○ 대·중소기업이 상호 Win-Win할 수 있는 새로운 성과 배분 모델을 개발*하고 공정한 성과 배분 문화** 확산

＊ 성과공유제 모델 확충(제조업/단가인하→IT·융합 등 신산업/공동R&D), 관리기관 운영 내실화 등

＊＊ 동반성장 투자재원 출연 협약 확대 등

○ 사회적책임에 관한 국내표준(KS) 제정·보급('12.상)

＊ 국내기업이 경영 활동시 준수해야 할 공정관행, 노동, 환경 등에 관한 지침 제시

□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동반성장 체감도 제고

○ (자금 애로) 하도급대금 지급방식 개선* 등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자금 문제 해소 추진

* 대기업의 현금지급 확대 유도, 어음 결제시 어음할인료 현실화 등

○ (생산성 향상) 1차 협력사 위주의 동반성장을 2차 이하로 확산하기 위해, 1·2·3차 협력사 현장 생산성 향상 종합지원* 확대

* 현장진단, 제조혁신 방법론 제공·교육, 기술기반 구축 등 패키지 지원

○ (중소기업 현장 점검 강화) 현장 모니터링 전담반 가동*

* 주요 산단 정기실사, 지역 업종단체·기관과 Hot line 구축→제도개선 과제 발굴

○ (수요자 만족도 조사) 대기업별 동반성장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협력사 만족도 조사·분석과 지원 프로그램 개선

* 사급제도 합리화, 협력사 자금지원(기업별 동반성장 기금 운영) 현실화 등

□ 동반성장의 지평 확대

○ (공공기관의 역할 강화) 능동적·선도적 동반성장 우선 추진

* 협력사와 공정거래 협약 체결, 각 기관별 동반성장 추진계획 수립 등

○ (산업별) 업종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동반성장 전략 실행

* (자동차) 해외 동반진출 / (철강) 철스크랩 유통구조 선진화 / (SW) 공공시장 제도개선 / (LED)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등

○ (지역·해외) 지자체 중심의 동반성장 확산 시스템 운영, 대·중소기업 해외 동반진출 전략 지원

* 지자체 동반성장 추진 평가 체계 구축,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표준모델 개발, 동반진출 유망 프로젝트 발굴·지원(플랜트, 전력, SW), 동반진출 중소기업 애로 모니터링 강화 등

2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으로 생태계 체질강화

가. 중소⇨중견⇨대기업으로의 성장 지원

◇ 2015년까지 120만 명의 일자리를 책임지는 중견기업 3천개를 육성하여 균형 잡힌 산업 생태계 조성

□ **(핵심역량 지원)** 성장단계별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지원 시책 마련

* 성장단계별 상이한 성장 정체요인(기은연구소, `09) : (중소) 과당 경쟁, 생산성 정체, (중견) R&D투자 부진, 글로벌 시장 진출 미흡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R&D* 목표관리제를 실시하여 '15년까지 지식경제 R&D예산의 40%(2조원 이상)를 중소·중견기업에 투입

* 녹색·신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 R&D신설, 중견기업 중심 R&D투자 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기술혁신역량 강화지원

○ 기술평가보증과 연계해 신산업 분야 기업의 기술개발·사업화와 양산 단계 자금을 지원하는 R&D 프로젝트 금융지원 강화

□ **(성장모델 지원)** 해외 전문기업 M&A 활성화, JV(Joint Venture) 설립 촉진 등 다양한 성장 모델 지원 확충

○ 중견기업 M&A·JV에 대한 정보제공, 네트워크 구축, 특별보증, 펀드 결성 등을 통해 해외 기업에 대한 M&A 여건 조성

□ **(World Class 300)** '20년까지 세계적 기업 300개 육성을 위해 우수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확대

* 지원 대상 기업(연간 선정개수) : (`11) 30개社, (`12) 60개社

□ **(글로벌 전문기업 클럽 결성)**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유도

* 성장성과 혁신성, 수출 등 글로벌화 수준이 뛰어난 우수 중소·중견기업으로 구성

나. 중견기업의 글로벌화 촉진과 전문성 제고

◇ 중소기업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으로 한 단계 성장한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시책을 개발하여 전문기업으로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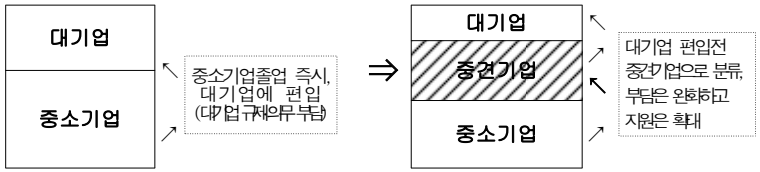
□ **(중견기업 지원 구체화)** 산업발전법 개정('11.3)으로 도입한 중견기업의 개념을 他법령 등에 반영하여 구체적 지원 본격시행

○ 대기업-중소기업 이분법적 분류 체계*를 따르고 있는 세제, R&D, 인력, 복지 등의 제도 중 중견기업 개념 도입이 적정한 영역 발굴

* 예: (현재) 조특법상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중소기업(7%), 대기업(3%)으로 분류하여 차등 지원 → (개선) 중견기업 세액공제(3%~7% 사이) 도입

【중견기업의 개념】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산업발전법 제10조의2)



□ **(합리적 부담완화)** 중소기업 졸업시 급격히 증가하는 부담*을 완화하여 성장통 최소화

* 중소기업 졸업시 160여개의 중소기업 지원 제도에서 적용 제외·지원 감소되거나 규제 부담이 증가

○ 중소기업 지원 시책의 단순한 연장을 지양하고, 시책별 지원 대상 중견기업 범위를 차별화*하는 방향으로 부담 완화 추진

* (예) World-class 300은 매출 1조원 이하 기업 중 R&D 집약도 2% 이상 또는 매출성장률 15% 이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선정

3 지역경제 활력과 자생력 강화

◇ 광역선도산업, 지역특화산업 개편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특화사업 추진으로 자생력 강화

□ **2단계 광역선도사업*을 통해 광역 클러스터 집중 육성**

* (1단계)광역권별 2개(미래성장 중심) → (2단계)광역권별 4개(미래성장2+지역주력2)

○ 지역 대표 주력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의 체감 효과를 제고

* 충청권(반도체), 호남권(레저선박), 동남권(해양플랜트), 대경권(금속·세라믹) 등

○ 지역기반 첨단산업 R&D 혁신 센터의 확충

* 탄소섬유(전북), 로봇(대구), 친환경자동차(광주, 울산, 전북), 첨단메디컬소재(경북) 등

○ 광역권내 산학연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R&D와 기업지원 서비스의 패키지 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원

* 소재-부품-완성품간 협업형 R&D,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R&D 집중지원

□ **지역의 산업여건에 기반한 지역별 특성화 발전 촉진**

○ 지역 특화산업을 고용친화형 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중심으로 시도별 성과 관리체계** 강화

* 예: 문화융합 생활 산업(패션, 안경, 가구 등), 지식 서비스 등

** 고용, 매출, 생산관련 지표를 지역산업 진흥계획의 공통지표로 설정·평가비중 확대

○ 대덕 연구특구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청년 아이디어 창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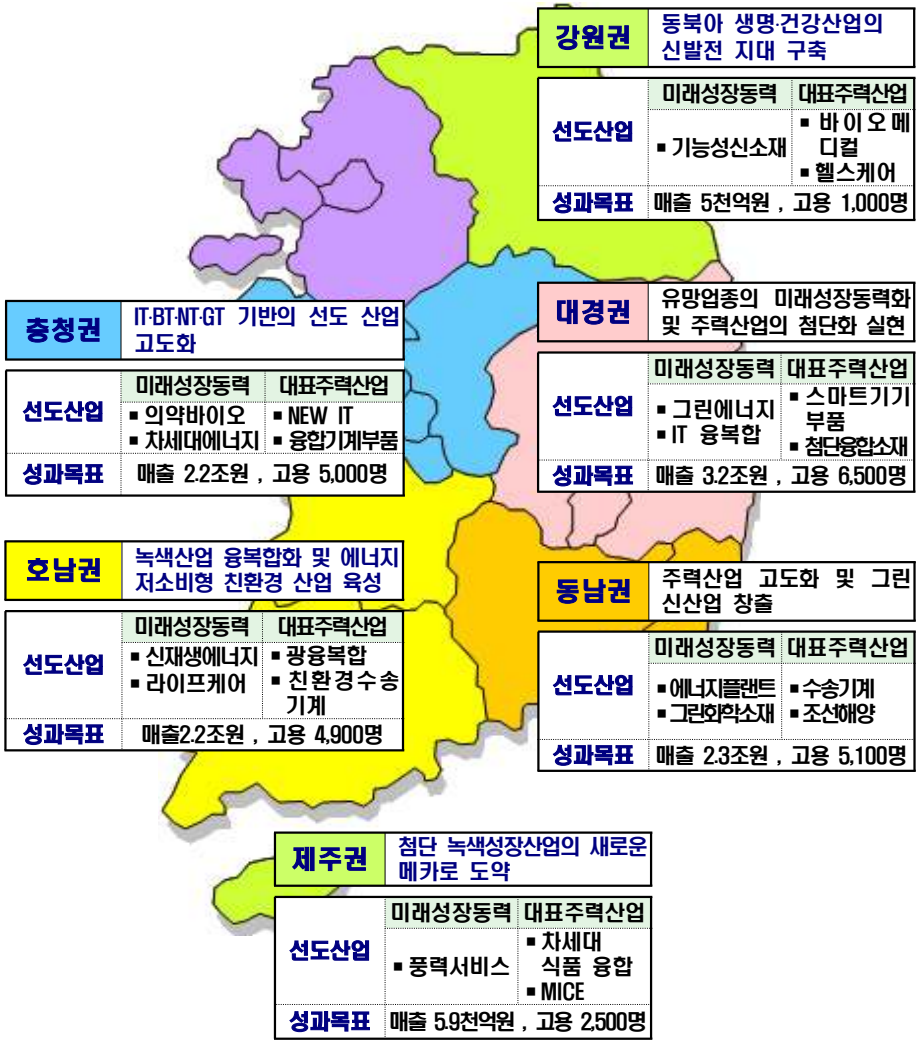
* 창업 공간 제공, 전문가 멘토링·컨설팅 지원

○ 뿌리산업의 지역별 특성화된 발전 추진

* 광주(금형·용접), 경남(금형·소성가공), 전북(주조·열처리) 등

【참고】 광역선도사업 2단계('12~'14) 육성전략(안)

◈ 3년후 목표 : 매출 11조원 및 고용창출 25,000명



Ⅳ-2. 멀리보는 미래 성장동력 확충

1 융합을 통한 산업의 글로벌 리더십 확대

가. IT융합의 산업 전반 확산

◇ IT융합이 산업 전반에 뿌리를 내리도록 맞춤형 확산전략과 핵심역량 확보에 총력

□ **범부처 차원의 「IT융합 제2단계 확산 전략」 수립**('12.상)

* 「IT융합 확산 전략(`10.7월)」을 토대로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 위주로 IT융합 추진중

○ (대상확대) 주력 산업에서 복지*, 민원** 등 생활밀착형 산업 추가

* (복지) 장애인 등을 위한 가전제품이 개발·보급되도록 법적 근거 마련
** (민원) 기존 '등기' 등을 대체할 수 있는 공인전자문서 중계제도 도입

○ (맞춤지원) 주력 산업은 SW 혁신, 생활 산업은 창의 발현에 중점

□ **SW, HW, 모바일 등 IT융합의 핵심 역량 강화**

○ (SW) 클라우드 플랫폼*, 감성형 인터페이스 등 핵심기술 확보

* 중소 SW기업을 위한 국산 클라우드 플랫폼 개발 지원(`09~`12년 총 71억원)

○ (HW) 투명·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전력반도체, 스마트 센서 등 차세대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

* 투명·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등 분야의 미래선도 R&D 신설(`12년 90억원)

○ (모바일) 4세대 스마트폰(LTE-Advanced) 개발 가속화, 평창 올림픽 대비 5세대 모바일 환경을 선제적 구축

□ **기업 지원센터*, 인력양성** 등 IT융합 인프라 강화**

* 산업IT융합지원센터(7개→10개), 산업IT혁신센터(3개→4개)
** IT명품인재양성(`11년 80억원→ 12년 110억원), 대학IT융합연구센터(`11년 7개→ 12년 9개)

나. 범국가적 산업융합 혁신역량 결집

◇ 국가적인 산업융합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 시책*을 추진하고 융합 역량의 기초가 되는 창의적인 R&D 문화 조성

* 「제1차 국가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 수립

□ 중소·중견기업의 산업융합 역량강화 지원

○ 산업융합지원센터를 통해 융합 경영을 지원하고, 산업융합 옴부즈만을 위촉하여 불합리한 규제, 애로사항 해소(`12.상)

○ 융합 신제품에 대한 적합성 검사기준이 없어 출시가 지연되는 경우 '원스톱 적합성 인증제'를 적용하여 신속한 출시 지원

□ 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기반 마련과 혁신 문화 확산

○ 산업융합의 객관적 척도인 '산업융합 지수' 개발·활용*

* R&D지원·융합 선도기업 지정 기준으로 활용

○ 전통지식과 첨단산업의 융합을 통해 차별화된 제품 생산

* 전통목조건축, 발효음식 등 전통 핵심기술의 DB구축·산업화 촉진 및 확산을 위해 관계부처·민간 전문가의 '전통지식 융합포럼' 구성·운영(`12.3)

○ 창조적 기술혁신을 위한 '인문+기술' 융합 활성화

□ 도전적이고 열린 R&D 문화의 정착

○ R&D 성공률을 현실화('10년 98%→'14년 50%대)하여 실패를 자산삼아 도전적인 기술개발을 과감히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개방·융합형 기술 혁신을 위해 R&D 全과정에 국제공동 R&D 등 집단 지성을 활용하는 열린 연구 활성화 추진(`12.상)

○ R&D 성공·실패 요인 등의 실적 성과 분석 강화와 구조 조정

다.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 핵심 설계기술, 감성디자인 등 기반기술 경쟁력과 SW 융합형 부품 개발을 바탕으로 미래 新주력산업 집중 육성

□ 신뢰성·감성을 살린 전략적 소재와 SW 융합형 부품 개발

○ 인간중심·신뢰성·감성 등 미래 산업의 트렌드를 반영한 SW 융합형 부품* 개발 추진

【전략적 소재와 SW 융합형 부품 사례】



□ 차세대 먹거리를 책임지는 융·복합 新주력산업 집중 육성

○ (전기차) 저가형 전기차*와 한국형 충전기 개발, 카-쉐어링(Car Sharing)을 통해 전기차를 조기 보급하고 활성화** 기반 구축

* 고속도로 주행이 가능한 1,000만원대(배터리 제외) 전기차 개발(`12~`14)

** 수도권 거점지역에 전기차 임대시행(`12.하)

○ (그린쉽)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온실가스 감축규제 발효(`13년)에 대비 에너지절감형 LNG선,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 등 개발

* 에너지절약형 선박·조선 기자재 R&D 지원: (`12)180억원

○ (해양플랜트) 심해자원 생산용 해양플랜트 시스템 등 고부가가치 플랜트 핵심 기자재 국산화

○ (기계)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 가능한 전략품목* 육성

* 친환경 트랙터, 초대형 고속 머시닝센터 등

라. 글로벌 특허·표준 주도권 확보

◇ 기술 경쟁의 격화로 점차 증가하는 글로벌 특허 분쟁과 국제 표준 확대에 능동적으로 대응

□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과 확보 강화

○ 특허괴물의 공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식재산전문회사 활성화*와 창의자본** 확충

* 중소기업 맞춤형 특허 Pool 구축, 라이센싱 활용 지원 등

** 창의자본: 아이디어·특허를 매입하여 연구개발 후 부가가치를 높여 특허 매각 등으로 수익을 창출, 민간자본 포함 누계:(`11)772억원→(`12)1,882억원

○ 특허분쟁 예보시스템을 가동하여 중소기업의 사전 대응력 강화

* '12.3월 예보서비스 시범제공('11~'13년간 15억원투자)

○ 'R&D 全주기'에 걸친 특허관리 시스템 구축(모바일, SW, 디자인 등)

* (사전단계) 선행특허조사, 특허동향조사 등 → (수행단계)전문가 파견을 통한 전략수립 지원 → (완료단계) 질적평가 강화

○ 특허심사기간 단축을 통한 기업의 지식재산 조기 권리화와 사업화를 위해 특허청 심사관 인력 증원 추진

□ 국제표준 선점과 표준외교 강화

○ 선도기술 중심*으로 표준 제안을 확대하고, ISO, IEC 등 국제표준화 기구의 상임이사국 진출**확대

* 스마트 선박 , 바이오인식 융합 정보보안기술, IT융합 분야 국제표준 제안 등

** 현재 ISO/IEC 상임이사국(6개국) : 미, 영, 독, 불, 일, 중

○ 국제표준화된 우리 개발 기술과 제품의 사업화 지원

* (시험방법 표준) 국가 R&D사업을 통해 시험장비 개발을 지원, (제품 표준) 신제품, 신기술 인증 등을 통해 공공기관 등에 판로 지원

□ 해외 M&A 등에 따른 국가 핵심기술 유출 방지(`12.상)

○ 산업기술 DB 구축, 매년 국가 핵심기술의 지정·변경, 해외 수출된 국가 핵심 기술의 실태 조사와 유출 방지 추진

【참고】 2조 달러 경제를 앞당기는 지식경제 R&D

지식경제부 R&D 예산 : ('11) 4.5조원 ⇒ ('12) 4.7조원

구분	정부투자* ('12,억원)	주요 추진분야	비전(`12→`16)
산업원천 기술 (산업+IT)	14,691	· 반도체·조선 등 주력산업 · 바이오, 나노, IT융합 · 차세대 IT기술	플랙서블 디스플레이  ⇒ 증강현실 디스플레이 
녹색성장 기술	11,972	· 친환경 에너지 · 차세대 수송시스템 · 에너지효율 향상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수송기기  ⇒ 지능형 자동차 
부품소재 기술	4,160	· 10대 WPM 소재 · 20대 핵심부품소재	실리콘 태양전지  ⇒ 플라스틱 태양전지 
광역권 기술개발	6,687	· 광역경제권선도사업 · QWL 밸리 조성 · R&D 특구	신재생에너지 특구  ⇒ 지능형 복합에너지 네트워크 
산업기술 기반구축	9,333	· 인문기술융합기반확산 · 출연연 연구 지원	부처연계형 인프라  ⇒ 커뮤니티형 인프라 

* 2012년 정부예산 제출안 기준

2 녹색·신성장동력 산업의 성장 가속화

가. 신성장동력의 성과 창출 여건 조성

◇ 신성장동력의 성과 창출을 위한 기반구축과 사업화 촉진

□ **미래 먹거리 신성장동력의 성과 창출 박차**

○ 「신성장동력 글로벌 주력 산업화 전략*」 수립('12.상)

* 금융지원, 특허분쟁 대응, 투자유도, 생태계 공용자산(DB구축) 확대 등

○ 신성장동력의 핵심기반인 반도체 등 7대 핵심장비 R&D*지원을 확대하고, 신뢰성 증진 방안 수립('12.하)

* 수요연계형(반도체·LED·디스플레이·그린수송), 수요창출형(바이오·의료·방송)

□ **주요 신사업 분야의 가시적인 성과 창출과 글로벌화 촉진**

○ (바이오·헬스) '의료IT·기기 + 병원 + 운영서비스'의 패키지형 의료시스템 등 고부가 수출 전략* 산업으로 육성

* 중남미 국립병원·디지털이동병원, 중동 U-헬스 수출 등 중점 추진

○ (나노) 미세화 한계를 극복한 나노 반도체, 에너지 변환 소자 등 NT와 IT, ET와의 융합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를 추진

○ (로봇) 대규모 로봇(뿌리산업·재활로봇 등) 보급 사업을 통해 시장 창출

□ **새로운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R&D 강화**

○ 미래선도 기술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전략기획단 주도로 새로운 먹거리를 지속 발굴

* 조기성과 창출형(5개 과제), 신시장 창출형(3개 과제)

○ 고령화, 기후변화 등 미래 사회 이슈에 대응하여 국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는 기술을 개발·보급하여 미래 산업화 추진

* 국민편익증진형 기술개발 중장기 전략 마련(`12.상)

나. 저탄소·녹색성장 본격화

◇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체계 정착과 녹색산업의 성장 촉진

□ **산업계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성실하게 이행토록 지원**

○ 산업·발전 부문 의무적 감축대상 업체(366개)의 '12년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감축 기술 보급, 설비 투자금 융자 등 지원

○ 중소·중견기업의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

* 에너지이용합리화법령 개정, 주요 산단에 온실가스감축 One-Stop 지원체계 구축

○ 중장기 감축·에너지효율 향상 목표 수립(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13~'32])

□ **대표적인 녹색산업의 성장 촉진과 수출 산업화**

○ (신재생에너지) 전력 다소비 가구에 적합한 보급모델 발굴* 등 생활체감형 산업 추진

* 「햇살가득 홈」 사업 : 금융기관이 설치자금 융자, 전기료 절감액으로 이를 상환

○ (에너지저장시스템) 원천·상용화 R&D 투자* 확대, 실증사업**을 통한 산업화, 보급 촉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등 마련

* 향후 10년간 에너지저장 R&D에 2조원(정부:0.5조원, 민간:1.5조원) 투입
** 제주도 변전소내 8MWh급 리튬이온전지 시스템 실증사업 추진중 (`11.7~`14.6)

○ (원전) 주요 수출 대상국에 수주 활동을 집중*하고, UAE원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한국 원전의 대외 신인도 제고

* 원전·산업 협력 등 Package deal 제안, 고위급 세일즈 외교 전개

○ (스마트그리드) 해외 실증단지 사업 참여* 추진

* 참여 후보지 선정을 위한 예비 사업타당성조사 등 추진(`12.상)

○ (재제조 산업) 자원 절감형 재제조 부품* 사용 활성화

* 재제조 품질인증 대상품목 확대(`11년 4개 → `12년 10여개) 등

3 소프트파워를 새로운 강자로 육성

가. 소프트웨어(SW) 산업 체질 강화

◇ 패키지 SW·임베디드 SW는 우리경제의 미래가 걸린 분야로 핵심경쟁력 제고에 주력

□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제도 개편

*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전략(`11.10)을 토대로 전방위 제도개선·지원 추진

○ SW산업 진흥법 개정을 통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SI* 기업의 공공시장 참여 제한

* SI(System Integration) 기업: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서비스 제공

○ 대기업의 공공 정보화 시장 참여 제한 금액 상향 조정*

* 자산규모 8천억원 이상 대기업(40→80억원), 8천억원 미만 대기업(20억→40억)

○ SW 특성에 맞는 평가·관리 체계 마련, 단기소액 R&D와 후불형 서바이벌 R&D 신설* 등 R&D 지원체계 정비

* (단기소액) 5천만원 이내, 누구나 참여가능 (서바이벌) 先개발-後지원형 R&D

□ SW 기술자산 활용 확대를 위해 SW 뱅크 구축

○ 정부 R&D를 포함 국내 모든 SW 기술자산*을 거래하는 장터 구축, 수요지향적인 맞춤형 컨설팅과 기술개발 등 지원

* SW 기술자산 : SW IP, 소스코드, 모듈, 개발 노하우 등

□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젊은 인재와 글로벌 인재 양성

○ SW 전문 인재 조기 양성을 위한 SW 마이스터고 설립

* (`12.상)대상학교 선정 → (`12.하)교육청·교과부 심의 확정 → (`13)기반조성·교육

○ 해외 고급인재를 초빙하는 브레인(Brain) 스카우팅을 추진하고 국내 SW인재를 선진국에 파견하는 인력교류 병행

나. 디자인·지식서비스 산업 역량 강화

◇ 지식기반 사회를 선도하는 디자인 산업과 지식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선진형 산업구조로의 개편을 견인

□ 디자인 산업의 역량을 강화하여 산업 전반에 창의력 제고

○ (전문기업) 우수 디자인 전문기업을 스타기업*으로 육성하여 디자인 산업의 성장기반 마련

* 기술개발·컨설팅 등 지원, (`11) 40억원 → (`12) 80억원

○ (디자인 경영) 디자인 경영 인증*과 디자인 투자 실적 인센티브제 도입** 등을 통해 디자인 주도형 경영 문화 확산('12.하)

* 중소기업의 디자인 활용실태 조사를 통해 업종·규모별 활용모델 육성·보급

** 디자인 연구개발 등 투자실적, 디자인 인력 고용 실적에 따라 디자인 R&D 과제 선정시 가점 부과

【디자인 경영】 디자인이 주도하여 기업의 비전과 가치 창출

○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의 디자인 역량 강화를 위한 '디자인 전략연구소*' 설립

* 주요역할: 글로벌 디자인 트렌드 조사·분석, 산업화 전략 등 연구

□ 新지식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

○ (유망업종 발굴) 제조업·IT-서비스간 융합 등을 통해 기존 산업을 고부가가치화 할 수 있는 신서비스 영역 확대

* 의약바이오CRO(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임상시험 수탁기관 : 시험+컨설팅), 스마트러닝(IT+교육) 등

○ (지식서비스 R&D) 제조업 R&D와는 차별화된 지식서비스 R&D 투자 활성화

* 이러닝, 컨설팅, 유통물류, 디자인, 제조지원 등 분야('12년 226억)